

제16대 대통령후보 초청(새천년민주당) 과학기술정책 포럼(FORUM)

이번 달에 치러지는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 의지와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토론을 통한 국가발전의 비전을 모색하여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코자 마련된 '제16대 대통령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포럼' 두번째 행사가 지난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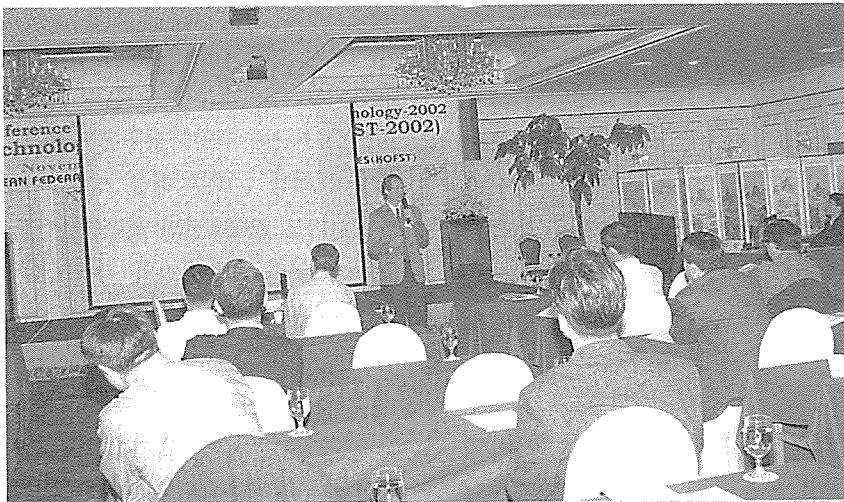
18일(월)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과총 주관 하에 개최됐다.

지난 10월 18일 한나라당에 이은 이 두번째 포럼에는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와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 및 지명토론자들이 참석하여 3백

50여명의 과학기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기초연설 및 질의·응답 내용은 본지 이번호(12월호) 특집란과 과총 홈페이지(www.kofst.or.kr)에서 볼 수 있다.

「나노 과학기술의 미래와 전망」 국제회의



학술발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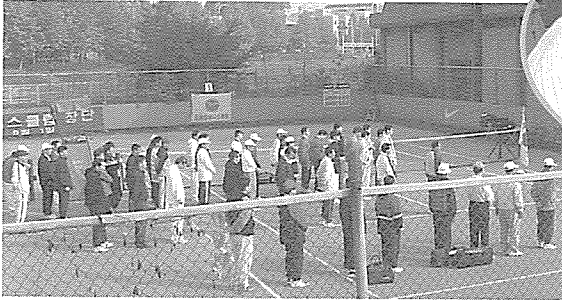
과총에서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만을 초청하는 새로운 형태의 심층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주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취약기술을 보완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금년에 처음으로 '2002 과총 과학기술국제회의 (Korea Conference on Innovative Science and Technology 2002)' 를 개최하였다.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나노 과학기

술의 미래와 전망」(Nanotechnology - Future Implication)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외 석학 5명 (Wilson Ho(미국), Yoshinori Tokura(일본), J.M. Ramsey(미국)), Alivisatos(미국), Kensall D.Wise(미국))과 국내 연사 5명, 그리고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 60여명이 참가하여 포스터 발표 등 NT 분야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 발표와 진지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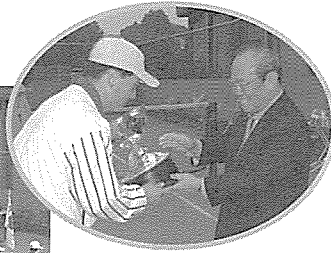
포스터발표 장면

제22회 과학기술인 테니스대의 개최



개회식과 시상모습

과학기술인의 친선과 체력단련을 도모하기 위한 '제22회 과학기술인 테니스대회'가 10월 25일 서울 양재동 소재 양재테니스클럽에서 개최되었다. 과총 회원단체와 과학기술 관련기관에서 총 38개팀이 출전, 복식조를 이루어 열띤 시합을 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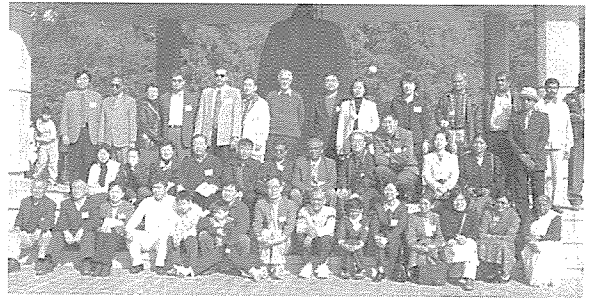


결과 입장을 차지한 팀은 다음과 같다. ▲ 우승 - 노년부: 김진영·권무남, 장년부: 서원명·이석건 (한국농공학회), 청년부: 이동규·박익렬(한국운동과학회) ▲ 준우승 - 노년부: 노재식·이봉준, 장년부: 유영국·곽기중(국방과학연구소), 청년부: 김석현·신태명(대한기계학회) ▲ 3위 - 노년부: 조동삼·송삼홍, 육창수·김문기, 장년부: 모양우·권장혁(대한기계학회), 청년부: 배현욱·박성한(대한치과보철학회), 이흥구·박정현(한국스포츠사회학회)

'Brain Pool' 산업시찰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제도(Brain Pool Program)에 의해 국내 근무 중인 초빙과학기술자 산업시찰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현대 자동차(주), 포항제철(주) 등 총 7개 기관과 경주지역의 문화 유적지 방문을 포함하는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됐다. 50여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은 전자, 자동차, 제철 등의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앞선 산업기술 현황을 견학하면서, 한국산업계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25일에는 천년 고도인 경주를 돌아봄으로써, 한국의 정신과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를 도모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전체 일정을 마쳤다.



경주 박물관 성덕대왕 신종 앞에서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전체 일정을 마쳤다.

「이공계기피현상의 타개책」 워크숍



지난 11월 21일(목) 대덕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02산학연합

의 발표자, 그리고 산업계·학계·연구계·언론·정부 관련분야 전문가 1백30

동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공계 기피현상의 타개책」을 주제로 김시중 과총회장의 개회사, 염홍철 대전광역시시장의 환영사, 홍창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장의 격려사에 이어 고재방(교육인적자원부) 외 5명

여명이 참석하여 장진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회도 진행됐다. 아울러 한국경제신문에서는 11월 22일자 11면에 특집으로 워크숍 내용을 대서특필하여 문제점을 부각시켰으며, MBC-TV 대전방송국, YTN 등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이공계 기피현상의 타개책」에 대한 국민관심도를 높였다. 한편 과총은 이날 개최된 워크숍 내용을 정리, 작성하여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에 정책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17